

 		<h1>보도자료</h1> <p>2019. 12. 20.(금) 배포</p>	
보도일	2019. 12. 23.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·방송·통신 12. 22.(일) 09:00 이후 보도 가능		
담당과	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	담당자	과 장 정윤경 (☎ 044-203-6411) 서기관 정원숙 (☎ 044-203-6972) 주무관 황광석 (☎ 044-203-6408)

미래 산업수요 대응을 위한 「전문대학 혁신방안」 발표

- ◆ 미래 신직업수요 대비 교육과정 혁신 및 중등·고등 직업교육 연계 강화
- ◆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기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
- ◆ 새로운 고등직업교육모델 ‘(가칭)마이스터대학’ 도입 추진
- ◆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,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신설 등 재정지원 크게 확대

-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12월 23일(월)에 미래 산업수요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고등직업교육체제 전반을 개선하는 「전문대학 혁신방안」(이하 혁신방안)을 발표하였다.
- 올해 2월부터 교육부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전담팀을 구성하여 학령인구감소,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대학 교육의 질 제고와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내용의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다.
- 특히, 전문대학 졸업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채용 수요에 따라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을 산업 구조에 맞추어 개선하고,
 - 급격한 기술변화와 인구 고령화에 따라 늘고 있는 성인의 직업 교육 수요에도 적극 대응하는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.

< 중소기업 채용 수요 관련 설문조사 결과('18.4, 중소기업진흥공단) >

- (채용 희망 학력) 전문대 졸(45.7%) > 고졸 이하(25.2%) > 대졸(20.8%)
- (채용 시 고려사항) 기술 및 관련 경력 보유 등 업무 능력(53.1%) > 인성(36.7%)

□ 이번에 발표한 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미래 신산업 수요에 적합한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고등 직업교육기관으로 전문대학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,

○ 산업·현장중심으로 전문대학의 교육과정과 학사운영 체계를 개선하고, 교원의 현장실무역량을 강화한다.

- 산업체가 참여하는 현장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융합전공제 등 유연한 학사제도 운영을 확대하며, 교육기자재 공동사용과 직업교육 분야 케이무크(K-MOOC) 확대 등을 지원한다.

- 또한, 교원의 산업체 연수기회와 현장전문가의 교원임용을 확대하여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며, 이론과 실습이 결합된 실무중심 수업 등 교수학습법 개선을 지원한다.

※ ‘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’을 활용하여 전문대학 교육혁신 지원

○ 일반고·직업계고와 전문대 간 수업을 연계하고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맞춤형 직업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연속성 있는 직업교육체계를 구축한다.

- 전문대를 입학하는 학생들의 출신고에 따른 맞춤형 수업과 일반고에 전문대학 위탁과정 확대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직업교육 운영을 지원한다.

- 특히, 산업체가 주도하는 인공지능(AI) 중급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계고-전문대 조기취업형 인공지능(AI) 계약학과 도입(2022년 5개교 시범운영)을 추진한다.

② 전문대학이 지역 성인 학습자의 직업역량을 키우는 평생직업교육 기관으로의 기능을 강화하고, 고도로 숙련된 전문기술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새로운 고등직업교육 모델 도입을 검토한다.

- 전문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입학정원의 상한기준과 입학자격 조건을 완화하고, 단기 직업교육과정에서 외부시설 활용 허용과 학점은행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.



- 또한, 전문대에서 석사과정까지 가능한 새로운 고등직업교육모델인 '(가칭)마이스터대학' 제도를 도입하여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대학원 진학 없이 석사과정까지 이수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※ 전문대학뿐만 아니라 일반대학도 참여 가능, ('20년) 정책연구 → ('21년) 시범운영 → ('23년 이후) 법령 등 제도 정비

- ③ 전문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고, 효율적인 직업교육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의 협업을 강화한다.

- 전문대학의 혁신을 위한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(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, '19년 2,908억→'20년 3,908억, 1,000억원 증)하고, 사업의 투명성·책무성 확보를 위한 성과평가 비중 상향, 예산집행 현황 공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.

- 성인학습자의 후학습을 위해 단기 비학위과정을 확대*하고 전문기술 인재장학금**을 신설하여 학기당 1,000여명의 우수 학생을 지원한다.

* 후진학 선도 전문대학 지원 확대 : ('19.) 15교 150억 → ('20.) 25교 250억

** I 유형 : (등록금 295만원+생활비 200만원) × 학기당 300명 × 2학기 = 29억 7천만원

II 유형 : 등록금 295만원 × 학기당 700명 × 2학기 = 41억 3천만원

○ 또한, 전문대와 폴리텍대의 연계를 강화하고, 폴리텍대 신설시 관계 부처 사전협의를 실시하며, 고용노동부와 함께 「직업훈련사업 선도대학」을 운영하는 등 부처 간 협업 강화와 관계법령 정비를 추진한다.

□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“미래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생애 주기별 직업교육을 책임지는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전문대학이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혁신방안을 현장과의 소통 속에서 면밀히 추진해 나가겠다.”라고 강조했다.

[별첨] 전문대학 혁신방안 1부. 끝.

